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 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예년 같으면 이 곳 요르단은 늦어도 3월 초순까지는 우기가 끝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파릇파릇하던 풀들이 마르고 황량해지는 사막 기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 오는 황사로 눈코를 뜰 수 없는 5월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고, 시리아에 내린 집중호우로 국경지대인 난민 캠프에도 적잖은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 요르단 소식

뒤숭숭하던 요르단의 분위기는 차츰 안정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가운데 전기와 휘발유, 경유 등 유류 가격이 몇 달마다 인상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아베 일본 총리가 잇달아 요르단을 방문하고 요르단과 시리아 난민을 위한 더 많은 원조를 약속하고 갔습니다. 국내 기업의 수출에 의한 경제 성장보다는 주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거나 난민들을 받아들임으로써 UN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요르단으로서는 미국과 일본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해부터 외국인의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서 1년에 50디나르 하던 것이 550디나르(\$755)가 되었고, 심사가 더 까다로워져서 비자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 자타리 캠프 소식

자타리 캠프 내 한국 아카데미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번 학기에도 태권도 승급 심사가 있어서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벨트의 색깔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모스코 왕실이 주는 Peace & Sport 교육상을 저희 아카데미가 받았었는데, 이 번에 Peace & Sport 총재와 스텝들이 와서 태권도 시범도 보고, 난민 캠프를 돌며 성화 봉송을 하는 이벤트도 가졌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 해도 대한민국대사 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캠프 내 12개 구역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 온 12개 팀이 대결하여 우승과 준우승을 가르는 큰 대회를 저희 학교 운동장에서 가졌습니다. 우승팀에게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과 트로피가 주어졌고, 이 행사가 캠프 내에서 질서와 단합,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귀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번 학기 동안에는 미국에서 온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이 몇 개월 동안 영어 수업을 도와주었으며, 돌아갈 때는 UN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에서 태권도 9단의 그랜드 마스터가 재작년에 이어 올 해도 오셔서 태권도를 지도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 승단 심사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단증을 국기원으로부터 받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5월 19일에는 올 해 승단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 학교에는 태권도 2단 이상이 여러 명 생겼으며, 2020년 도쿄 올림픽에도 난민 자격으로 참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해는 라마단이 5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금식 중이라 정상 수업은 할 수가 없어서 지도자반만 운영을 하고, 한 달 라마단이 끝나는 대로 수업을 재개해서 6월 23에 방학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가정 위에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마아 쌀람...

요르단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 이상만 이미레 선생 올림...

## ㄱㄷ 제목:

1. 시리아 난민들에게 지혜롭게 도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도록.
2. 저희 부부와 사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비자를 새로 신청을 했는데 속히 발급되도록, 하루 빨리 아랍어에 능통해져서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3. 한국 아카데미에 필요한 헌신자들(교사들, 태권도 사범)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정식 학교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교재와 시설들이 속히 준비되어지도록.
4. 장단기 사역자 숙소가 빨리 완공되어지도록.
5. 미국에 남겨진 두 아이들(다솔, 다해)이 주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각자에 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1. 홍수 후 거리 모습



2. 파란색 벨트로 승급한 아이들



3. 대한민국대사 배 축구 우승 트로피



4. Peace & Sport 총재와 함께



5. 매주 토요일마다 구워주는 한국 봉어빵



5. 장기 사역자 숙소 건립 모습